

싸르코지 정부 대학교육 개혁의 내용과 전망

김차진 |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장

I. 대학교육 개혁의 경과 : 싸르코지 집권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싸르코지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교육개혁을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싸르코지는 40년간 프랑스의 고등교육 분야의 개혁이 지지부진하여 대학 및 국가의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되었다고 강조하면서, 프랑스 대학 및 연구수준을 세계 최고로 끌어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이 후 초등 교육과정 개편을 비롯하여 고등학교 개혁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초·중등 및 대학교육을 총괄하고 있던 교육부에서 대학교육과 연구를 관할할 '고등교육연구부'를 신설하여 젊고 현장 감각이 있는 뻬크레스를 초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이어 2007년 7월부터 대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조치들을 단행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법안 정비에 착수하였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대학개혁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관리의 자립과 대학운영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 양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개혁안에 대한 발표를 시기

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7년 7월 25일 대학교개혁법이 국회를 통과 한 이후, 2007년 8월 10일 「대학의 자율과 책임에 관한 법률(LRU)」을 공포하여 21세기 대학의 구도를 그릴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2년까지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50%까지 증액할 것을 2007년 11월 28일 이미 공식화하였다. 2008년 예산부터 100~150억 유로의 자금이 대학예산으로 투입될 것이며, 고등교육을 위해서 추가로 10억 유로가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싸르코지 대통령은 2007년 11월에 프랑스 전기공사(EDF)의 자본 중 3%를 매각하여 나온 50억 유로를 추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가장 우수한 연구자와 학생들이 프랑스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수한 캠퍼스' 조성에 이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공포하였다.

따라서 2007년도가 대학개혁을 위한 법률안 마련과 재정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2008년도는 구체적인 개혁 안의 제시와 그것의 실행기간으로 볼 수 있다. 지난 논고에서¹⁾ 2007년 하반기까지의 프랑스 정부의 대학개혁 동향을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 이후 2008년 상반기 동안 프랑스 대학교육개혁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학교육 2007년 11-12 v. 150 (p.52-59)에서 '프랑스 대학교육개혁 동향 및 시사점'을 기술한 바 있으므로, 그 이후의 대학교육개혁을 기술하고자 한다.

II. 대학개혁의 주요 내용

1. 대학 자율성 및 자립 확보

「대학의 자율과 책임에 관한 법률」은 대학의 자립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전적인 통제 및 관리 하에 있었던 대학이 자립을 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학지휘체계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시도된 것이다. 즉 모든 대학들은 2008년 8월 11일 이전에 새로운 대학행정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80개 대학이 2008년 2월 10일까지 대학 행정위원회의 인원을 60명에서 30여 명으로 줄여야 했고, 2008년 8월 11일까지는 행정위원회의 구성원에 적어도 한 명의 기업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현재 고등교육연구부의 보고에 따르면, 평균 2명의 기업인이 행정위원회에 선출되었다. 각 경제 분야 대표들의 동참과 더불어 1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대기업 약 50%, 중소기업 약 40%) 이미 참여하고 있다. 미셀린이나 로레알과 같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10여개의 다른 기업(Limagrain, les Banques populaires 등) 마르느 라 발레 대학, 파리 5대학 및 끌레르몽-페랑 I 대학 등의 행정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대학행정위원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학교육이 적절한지, 대학교육을 받은 후 직업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적절한 기반이 마련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대학의 다른 정책변화들에 대한 의견도 대학 측에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자립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빼크레스 고등교육연구부장은 2008년 7월 23일 20개의 1차 자립대학 리스트를 발표했다. 85개의 대학 중 20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이 대학들은 2009년 1월부터 자립이 보장되는데, 즉 4년간에 걸친 전체 예산과 자산 예비 및 인적자원과 급여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선정된 20개 대학은 엑스-마르세이유 2, 쉘리-뿡뜨와즈, 끌레르몽-페랑 1, 꼬르뜨, 리모즈, 리옹 1, 마르느 라 발레, 몽뻬리에 1, 뮈루즈, 낭시 1, 파리 5, 파리 6, 파리 7, 라 로셀, 썩뎀엔느, 스트라스부르 1, 스트라스부르 2, 스트라스부르 3, 폴

루즈 1, 트로와 공과대학이다. 이러한 자립대학을 선별하는 데 사용된 기준은 회계 및 재정관리, 인적자원 관리, 정보체계관리 및 부동산 관리이다.

대학의 자유와 책임을 보장하는 이 법은 5년 이내에 프랑스의 모든 대학이 예산과 인적자원 관리에서 자립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학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이 부동산의 소유주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각 자립대학에 250,000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8년 7월 29일 고등교육연구부장은 2차 대학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지금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30개의 대학을 감사하여, 2010년 1월 1일까지 이 대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계속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캠퍼스' 플랜 : 캠퍼스 시설 및 대학 재편성

샤르코지 대통령이 미래의 대학 캠퍼스 조성을 위해 구상한 이 정책의 목적은 기존의 캠퍼스 시설을 개조하여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을 만들어, 미래의 훌륭한 대학 캠퍼스에 합류할 수 있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데서 고안된 것이다. 최근에는 학생이나 교수, 연구자들(프랑스인이나 외국인 할 것 없이)에게 캠퍼스의 매력 자체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시설 자체를 개조하는 것도 중요한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캠퍼스 시설 자체에 엄청난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30%나 증가된 10억 유로가 시설에 투자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여기에 다시 50억 유로가 추가로 투자되는 것이다.

고등교육연구부장은 2008년 2월 캠퍼스 플랜을 공고하면서 10개의 대학을 먼저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로 5월에 다음과 같은 6개의 대학을 선정하였다. 먼저, 보르도 대학의 고등교육 및 연구 단지, 그르노블 대학, 리옹 대학이 두 캠퍼스를 대상으로 제시한 계획안, 몽뻬리에 1, 2, 3 대학의 계획안,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1, 2, 3

대학이 2009년 1월 대학 통합을 예정으로 제시한 계획안이 선정되었으며 끝으로 푰루즈 대학이 선정되었다.

주요 선정 기준은 교육과 연구의 능력 측면, 학교 부지 상태의 위급성, 캠퍼스 생활의 개발(스포츠, 문화 활동 등), 소속된 지역과의 협력 개발 가능성 등이다. 선택된 6개 지역 대학들의 정책 안의 공통점은 파리 소재 대학들이 제출한 것과 달리 대부분 지역 내 대학들 간의 연합 및 통합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된 것이다. 스트라스부르대학은 대학통합을 통해 프랑스에서 가장 큰 대학을 만들고 다학문을 다루는 대학을 만들어 유럽의 다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르노블대학은 대학건물의 보수 외에도 다섯 개의 새로운 학교를 창설할 것이며, 그 중 하나는 물리, 화학, 약학, 생물학의 전반을 교육하는 기관을 구상 중이다.

2008년 7월 11일 2차로 선정된 4개의 대학은 엑스-마르세이오 대학, 파리 1, 8, 13 대학과 파리고등사회과학대학원, 파리고등실용대학원, 파리경제학교, 에콜 드 샤프르트가 공동으로 제출한 캠퍼스 콩도르세 파리-오베르빌리에가 선정되었고, 21개의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제출한 싸클레 캠퍼스가 선정되었다. 나머지 하나는 파리 내에 있는 대학과 고등교육기관들의 학문적인 잠재성을 고려하고 또한 흩어져 있는 대학 캠퍼스들을 일관되게 모음으로써 각 대학의 정체성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차후 평가단의 의견을 모아 파리의 대학들이 선정될 것이다.

이러한 10개 대학 캠퍼스 시설 및 구조 개혁에는 39개의 대학, 37개의 에콜, 주요 연구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며, 650,000명의 학생과 21,000명의 연구자가 관련된다.

이러한 대학 자립을 위한 법률과 캠퍼스 플랜이 대학 병합에(스트라스부르, 몽펠리에, 엑스-마르세이오 등) 촉진제 역할을 하였고, 프랑스 대학의 새로운 풍경이 드러

나고 있다.²⁾ 대학자립을 위한 법률이 대학총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므로 각 대학의 총장들은 실질적인 대학운영의 자율을 통해 다른 대학들과,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다른 대학들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대학들 간의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고 자금관리 등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재단이나 개인 자산가 등 민영 재정에 의존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 대학 및 연구기관의 평가 강화

상하이 Jiao Tong 대학에서 발표된 2008년 전 세계 대학별 순위 분류에서 프랑스대학들은 약세를 보였다. 사회과학분야에서 100위 안에 포함된 프랑스 대학은 없었다. 순위에서 그나마 앞서있는 분야는 수학과 물리학을 포함하여 지구과학 영역인데, 파리 11대학이 25위에 있고 파리 6대학이 뒤를 따르고 있다. 고등사범학교, 스트라스부르 1대학과 파리 7대학이 순위에 나타나고 있다. 2008년도 2007년과 마찬가지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의과대학의 경우 파리 5대학만이 100위내에 들어있다.

반면 미국 대학들은 하버드대 등을 비롯하여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유럽대학 중에서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몇 개 영역에서 10위권 내를 차지하고 있다. 총괄적으로 보면 프랑스대학은 미국대학이 308번 인용된 데 비해, 겨우 9번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대학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노벨상을 받은 졸업생 또는 교수의 수, 각 분야의 수상자 수, 연구업적 등이다.

프랑스 대학들이 세계의 다른 대학들과 비교하여 왜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가? 굳이 이유를 든다면, 첫째, 상하이에서 나온 이 분류는 순수한 학문적인 수행만을 기준으

2) 또한 2006년 4월 공포된 '연구에 관한 정책 법'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10개 대학교육 및 연구단지를 조성하고자 했고, 2007년 3월에는 9개의 교육 및 연구단지가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엑스-마르세이오 3개 대학을 묶은 엑스-마르세이오 대학 단지, 낭시 1, 2대학과 INP를 묶은 낭시대학단지 등 9개가 선정되었고, 얼마 전 클레르몽-페랑에 10번째 교육 및 연구단지가 형성되었다. 다른 세 개의 계획안이 진행 중에 있다(드와르, 노르-빠드-갈레 그리고 리모즈-쁘와티에-라 로셀). 이러한 공동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국립대학들과 국립연구기관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강화하기위해서 13개의 주제별 공동연구망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로 한 것이며, 직업성취도나 벤치기업창업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영어로 된 연구업적만이 평가된 것이어서, 불어로 논문을 제출한 프랑스 연구자들의 업적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프랑스 연구자들이 연구업적에 소속을 기입할 때, 대학 이름을 명확하게 기입하지 않고 연구업적 공개 시 주로 자신이 연구를 하며 소속되어 있는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CNRS)만을 연구업적에 기재하여 업적평가 시 대학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벨리테크니크과 같은 그랑제꼴이 있다는 프랑스 제도의 특수성이 큰 약점이 된다. 이번 순위결정에서 그랑제꼴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5년 이후 꾸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연구개혁체계는 조직면이나 국가의 지원금 측면에서도 큰 변화의 흐름에 직면해있다. 2006년 4월 연구를 위한 정책 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해 대학의 자율과 책임에 관한 법률제정에 이르러 프랑스의 연구체계는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있다.

대학들에게 경영의 자율과 자립을 주는 대가로, 연구기관과 학교들은 전례 없는 평가를 받게 된다. 2007년 3월 '고등교육 및 연구 평가 기관' (AERES)을 설치함으로써 연구발주자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교육부와 같은 정부기관에게,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에 대한 더욱 독립적이고 엄격하며 일관된 평가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국립 평가기관은 독립된 행정권한을 가지며 프랑스 대학이나 연구기관평가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도 평가하는 등 실질적인 평가를 책임진다.

이러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이외에도 학생들이 교수들을 평가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아탈리(Attali) 보고서'에서 재개된 이 제안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미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이미 유럽의회가 권고한 시기인 1998년 이후 정기적으로 언급되어 왔지만, 여전히 시행이 늦추어지고 있다. 뻬크레스 고등교육연구부장은 학생들이 교육을 평가하는 쪽으로 가야하며,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이러한 평가가 일반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에서 이러한 교수평가에 대한 주장은 몇 해 전부터 급속도로 일어났지만 일반화되기에는 아직 먼 단계에 있다. 몇몇 대학들은(파리 5대학과 6대학 및 마르느-라-발레) 이미 교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파리 4대학에서는 점진적으로 대학의 전 교육이 평가될 것이다. 2007년 6월에 영어, 철학, 러시아어, 역사에서 첫 평가가 실시됐다. 그랑제꼴에서는 이 제도가 제법 실행되고 있다.

이렇듯, 잠자고 있던 프랑스대학과 연구기관에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평가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프랑스대학들도 서서히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경쟁조장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프랑스 대학교육 및 연구기관들의 자체 각성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4. 유럽권 대학의 순위 기준 마련

프랑스 대학들이 세계 다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것과,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나온 대학순위가 학생들이나 교수 및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는 것을 뻬크레스 고등교육연구부장관도 인식하고 있다.

프랑스가 이번 7월부터 유럽의회 의장국이 되면서 교육부와 고등교육연구부도 의장국 기간 동안 주안점으로 두고 실행할 계획들을 발표했다. 뻬크레스 고등교육연구부장관은 지난 해 가동된 고등교육 및 연구평가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평가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점에서 대학연구산출지표(IPERU)를 개발하여 2009년 초에 가동시킬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하여 유럽대학의 순위를 정하여 학생들과 연구자 및 교수들에게 교육의 질적인 면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활발한 교류에 촉진제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오는 11월 13-14일에 '국제적인 비교 지표: 유럽식 접근법'이라는 컨퍼런스를 프랑스 니스에서 열 예정이다.

프랑스가 유럽의회의장국인 시점에서 먼저 프랑스 대학의 위치를 유럽 내의 다른 대학들에 비교하여 설정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국제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유럽식 대학비교 지표설정과 연구결과물 산출 지표설정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연구결과물 평가방법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럽권 내의 평가지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잠깐 언급된 바와 같이, 영어권 위주의 연구평가방법에 만족하지 않는 유럽권의 자구책으로 볼 수 있다.

5. 교육체제 손질

- '학부 성공' 정책에 7억3천만 유로 투자

베크레스 고등교육연구부장은 대학교 1학년 학부생들의 실패율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학부 성공 정책에 관한 다년간의 계획을 공개했다.(2007년 12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억3천만 유로가 투자될 것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43%가 인상된 액수에 해당된다. 매년 280,000명이 대학교에 입학하지만, 52%가 대학교 1학년에서 실패, 30%가 낙제, 16%는 전과, 6%는 대학교 학업을 중도 포기한다. 이러한 대학교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어 놓은 학부성공 정책은, 학부내용 변경과 학생들의 진로진도 및 보조 가동,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도울 수 있도록 단기 직업 과정을 동원하는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한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반 학사 내용의 개혁이다. LMD(학사-3년, 마스터-2년, 박사과정-3년) 체계에 따르는 개혁된 학사학위는 3년에 걸쳐 취득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를 계속하거나(일반 학사) 직업세계로 나가는(직업 학사)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학사 1학년 과정은 '기본'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학생들은 대학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기본교양이나 외국어 습득, 사회경제 지식, 컴퓨터 활용 지식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식을 쌓게 된다. 학사 2학년 과정은 1학년 때 습득한 지식에 근거하여, 지식을 '강화'하며 전공과목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시기다. 2학년은 세미나, 포럼, 회사의

참여 등을 통해서 직업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2학년 중에 개인의 연구계획이나 직업계획을 세운다. 3학년은 개인의 계획에 맞는 전공학습을 하게 되며, 학사과정 중에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번의 연수(행정, 교육 또는 기업 등)를 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시수도 주당 평균 5시간이 증가한다.

학생들의 대학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일반 학사 개편을 통해, 국가는 교육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와 학생들이 직업으로 진출한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국가는 대학들에게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식하여 교육내용을 편성하도록 하고, 다학문성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전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사과정을 조절할 것과, 학사과정을 마친 후 직업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진로변경을 용이하게 할 것을 대학들에게 주문한다.

결국은 프랑스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학평가기준에서 학생들의 취업률이 고려되기 시작한 것이며, 학업 자체도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략화 위험의 소지가 있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도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우선시 하게 될 것이다. 대학들의 수업내용들도 학생들의 진로지도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 그랑제꼴과 대학 간의 학사업무 협력 조성

2008년 6월 4일 고등교육연구부장은 대학과 그랑제꼴 간에 협력방안을 찾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그랑제꼴과 대학 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랑제꼴 준비반과 대학 간의 교류 조성(준비반과 대학 학사과정의 동등성 인정문제, 연계 과정, 이중 학위 등),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그랑제꼴 출신의 학생들이 더 많도록 하기 위해 대학의 박사과정과 그랑제꼴의 교류 조성, 모든 교육기관과 프랑스 및 외국의 경제조직의 교류 조성 등. 고등교육전문가와 사회-경제계 인사들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008년 9월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III. 맺음말

2008년 상반기 동안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는 프랑스 대학교육개혁에 관한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 개혁의 큰 줄기는 대학교육에 대한 유례없는 국가지원,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진, 연구분야의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연구의 평가강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노력들은 결국 내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외적(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 내적 구조 개혁 : 시각적인 재편성 시도

캠퍼스 병합 및 재배치, 대학들 간의 병합, 그룹별 대학교육 및 연구 단지 조성, 대학평가 강화, 교육 및 연구 평가 강화, 학생들의 실패율 저하 노력, 취업률 강화.

- 외적 경쟁력 강화 : 국제적 평가 재고

유럽식 비교 지표 설정, 유럽 내의 대학 순위 설정, 유럽 전체의 학생 및 교수교류 활성화.

지난해부터 프랑스 대학과 연구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학교육과 연구가 변화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이겨내고 국제사회에서 프랑스 대학의 인지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혁이 교육과 연구의 주인인 학생들과, 교수 및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들이 구조개혁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맞는 개방책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자율과 경쟁의 원리가 바탕이 되어 있는 프랑스 사회에 걸맞은 대학의 모습을 되찾고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인지도를 높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이룩한 인문사회과학, 기초과학의 오랜 학문적 성과를 고려한다면 통계수치뿐만 아니라 학문의 내적 성과 또한 기대되는 바가 크다. 문제는 콘텐츠다. 이 콘텐츠가 뒷받침될 수 있는 프랑스의 철

학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지금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가 이르지만 긍정적인 성과가 자못 기대되는 바이다. 프랑스의 대학 개혁 방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도 학문적, 사회적 콘텐츠를 더욱 풍성히 확보하여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 고 · 문 · 헌

- 신문기사(Le Monde, Le Figaro): 2007년 11월~2008년 7월
- 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education.gouv.fr/>
- 프랑스고등교육연구부홈페이지<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pid20112/enseignement-superieur.html>

필 · 자 · 소 · 개

김차진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